

법치를 이루실 변혁의 리더 윤석열 대통령님께

법치를 소망하는 시민 곽춘규 올림
연락처 : 010-3737-7004

위기가 없던 때는 없었지만, 시대적으로 인류의 패러다임이 예측하기 힘든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불철주야 국민과 국가존망의 짐을 지시고 고군분투하시는 승전대로에 승리의 노래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나섰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한 소시민입니다. 저의 사건은 올해 2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일은 알 수 없다고 한 어느 현자의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윤대통령님의 지혜와 결단, 담대함이 역사적이고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을 보고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정을 1년 넘기시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란 사실도 체험하셨으리라 봅니다.

1+1 = 100 이라고 하는 세력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담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2년 고난의 진실투쟁을 해온 저조차도 그런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법변혁운동을 해 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에 법조사조직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윤대통령님께 중요한 것은 이들 법조사조직이 국정운영에 방해를 넘어서 정부실각을 유도하며 공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검수완박이 통과되게끔 배후에서 공작하였고, 더 나아가 경찰에 자신들의 법조사조직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는 실질 증거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겪어보셨다고 생각됩니다.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우파의 대략, 민사판례연구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대통령님과 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드러난 좌파 보다는 돕는척하다가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우파법조인들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힘 당의 유력자들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돕는척해도 결국에 법조사조직, 카르텔의 명령이 내려오면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과 봉평 아버지의 <사륜 오토바이 사건>에 좌파 법조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인생향로가 바뀌었고, 사법운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5년, 10년, 15년을 지나며 탄핵사건까지 겪게 되었고, 우파법조인들의 무법과 범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탄핵자체는 절차적으로 인정하지만, 탄핵이 일어나기 1개월 전에 발생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헌법84조 위반범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검과 헌법84조는 상충되지 않으며, 양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우파 태극기지지 세력은 이 사실을 왜곡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고 있는데, 이는 반란우파법조 세력의 당연한 세뇌 공작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두 사건이

윤대통령님을 주로 공격하는 좌우파 법조카르텔에게는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 구체적입니다.

정부의 국정정책을 물고 늘어지는 좌파와 좌파법조, 시시때때 치명적 공격기회만 보고 있는 우파법조에게 이 두 사건은 끓는 물과 같을 것입니다. 20년 전 좌파가 일으킨 사건인데,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우파법조가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결과를 맺으시면, 저에게는 빼앗긴 아버지의 집과 땅을 되찾게 해 주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제, 그 두 사건에 매달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변혁을 여실 이> 앞에서 법치와 정의의 실현을 믿으며 소망과 사랑으로 글을 올립니다.

2002년 8월에 시작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입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www.air365.net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로 어제 밤 (2023.10.18.pm 10)까지도 스트킹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들이 20여년을 은밀히, 숨어서 감시 미행, 업무방해, 해킹등으로 괴롭히더니 윤대통령님 정부하에서는 드러내 놓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전쟁 같은 삶의 감각으로 얻은 결론은 정부에서 하는 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사조직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대통령님께서서는 카르텔의 부조리와 부패로 말씀하셨고 그런 공무원집단의 카르텔은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제 밤 사건 같은 경우도 시간이나 장소, 또 신고한 사람이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부터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진실을 홈페이지에 재 부각 시키자, 이들의 이런 스트킹과 방해 공격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적 법조사조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들이 20년이나 지난 사건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덮으려고 하는지 아래 공식문서, 즉 2006년 참여정부 환경부에서 조사하여 공기청정기 피해자에게 보내준 오존측정문서를 해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공인기관 시험측정지

공기청정기 오존 방출 시험 결과 통보서

1. 시험 제품

<input type="checkbox"/> 모델명	그린나라 20	<input type="checkbox"/> 제조사	(주) 청풍
<input type="checkbox"/> 제조일자	표기 안됨	<input type="checkbox"/> 사용기간	1년

2. 시험 기관

<input type="checkbox"/> 기관명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input type="checkbox"/> 시험담당자	김학준 (TFI : 042-868-7775)	<input type="checkbox"/> 확인자	김용진 (TFI : 042-868-7475)

3. 시험 방법

본 시험은 한국공기청정협회 규격(SPS-KACA002-132 규격) 부록 3의 절차에 따라 시험체의 정격풍량과 방전/집전부의 정격전압의 운전에서 시험체의 공기 토출구 5cm지점의 공기를 약 1l/min으로 흡입하면서 24시간동안 농도를 측정한다. 시험실내의 초기오존농도가 0.01ppm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 측정한 평균농도에서 초기농도를 뺀 값을 오존발생농도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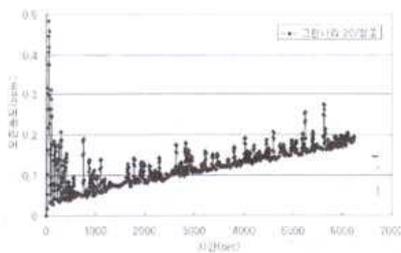
4. 시험 결과

- 토출구 5cm거리에서 103분간 측정한 결과 최대값이 0.05ppm을 초과하였음
- 오존 방출량은 시험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5.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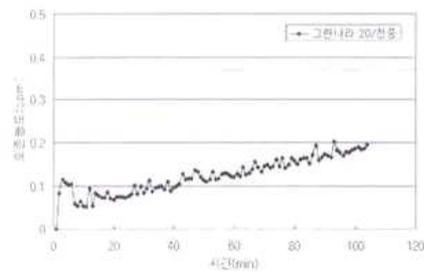
① 1차 검사 결과 (측정일: 2006년 9월 6일, 측정시간: 103분, 측정거리: 토출구로부터 5cm)

< 초당 측정값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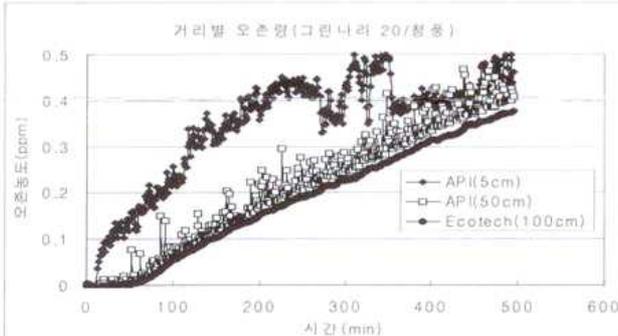
· 측정시간중 최대값 : 0.485ppm

< 분당 측정값 변화 추이 >



- 측정시간중 최대값 : 0.202ppm
- 오존농도 증가 속도 : 0.0013ppm/분
- 0.05ppm 도달 시간 : 2분

② 재검시 결과 (측정일: 2006년 11월 7일, 측정시간: 500분, 측정거리: 토출구로부터 5cm, 50cm, 100cm)



· 5cm, 50cm, 100cm 측정 결과 모두 최대값이 0.05ppm을 초과하며, 측정시간 중 지속증가 양상을 보임

< 오존농도 증가 속도 >

- 5cm : 0.0012ppm/분
- 50cm : 0.0010ppm/분
- 100cm : 0.0009ppm/분

< 측정시간중 최대 농도치 >

- 5cm : 0.5ppm 이상
- 50cm : 0.467ppm
- 100cm : 0.376ppm

※ 동 시험결과서는 환경부, 한국소비자보호원, (사)한국공기청정협회 공동 주관하는 공기청정기 오존 안전성 검증서비스의 일환으로 소비자 사용제품을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영원히 은폐하려는 법조사조직들은 왜 해킹범들을 시켜서 이 오존측정기 문서를 없애려고 애를 쓸까요?

이 오존측정기의 치명성과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면 사람이 한 1-2년 견딜 수 있는 수치 같지만, 실제적으로 훨씬 큰 데미지를 폐와 기관지에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도.)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참여정부의 환경부 장관 정세균 당시 장관은 실무 과장과 약속한 2006년 9월 KBS 9시 뉴스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발표하기로 하고도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장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 문서가 말해주고 있고, 좌파의 주요 지도부가 발 벗고 나서서 막아왔기 때문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빅딜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저 오존측정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 13년이 지나면서 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뜻하지 않게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경험하고 실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이 한창일 때

비싼 마스크를 하루, 이틀 쓰고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옛날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중에 아주 작은 차량용 청정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살균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밀폐 봉지 안에 손바닥만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넣고 함께 사용한 마스크를 넣어서 밀봉하여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오존의 피폭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오존이 살균력이 뛰어나서 사람의 허파 폐세포까지 살균하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마스크 한 장을 근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 오존의 반감기랄까요.(없어지는 시간)
즉, 오존 처리된 마스크를 꺼내서 손으로 흔들거나, 바람에 흔들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오존이 다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30분이 지났는데도 마스크에 오존이 남
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하면, 냄새가 납니다.
오존 특유의 냄새. 비린내. 바로 그것 때문에 20년이 넘게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오존이고, 그 오존은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실내에서 음이온 오존 청정기를 끄고 있어도 , 창문을 열고 방문을
열어놓아도 하루이상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존이 축적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 청정기는 보통 사용하게 되면 며칠이고 계속 켜놓는다는
것이고, 이 말은 오존이 계속 누적, 농축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점을 이번에 직접 경험, 실험 하였고, 혹시 정확하지 않을지 몰
라서 계속 2년 가까이 실험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까지 더하여 저 오존 측정치를 다시 해석한다면
(이 오존측정치 문서를 2006년에 받고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
여 모 기자에게 주었고 저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음)

저 정도 양과 , 보통 하루 이상, 며칠이고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틀
어 놓는다고 보면, 즉, 3일에 하루 꺼둔다고 해도 ,
저 정도 양이면, 3년 사용하면, 대부분 기관지가 오존에 심각하게 피폭
되고, 확연한 병증이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 기관지 약한 분, 또는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
면 독가스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환경부 장관은 대의를 위해서 국민이 놀라 경끼하거나 심장마비에서 구해 주려고 17년이나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천식환자와 기관지 , 폐암환자들을 구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2023년) 환경부에서 폐질환에 대하여 피해자를 구조해주고 있습니다. - 가슴기 피해자는 그 피해 증상이 공기청정기 피해자와 동일하다는데, 팩트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피해자는 20년 은폐하며, 피해자들에게 착시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는데도 명백한 사실을 왜 발표 못하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2006년 여름, 정세균 환경부장관 하에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용자 전수 조사가 진행되었고, 저 오존 측정치도 바로 그때 측정하고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보낸 오존측정치인 것입니다.

결론은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는 켜 놓으면 켜 놓을수록 오존이 누적, 농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측정치 만으로도, 103분이 지나면, 규제치인 토출구에서 5센티 , 0.05ppm 을 넘어서고, 약, 2시간이면 공기청정기의 규제치를 넘어설 뿐 아니라, 2시간만 공기청정기를 켜는 소비자는 없기에 저 그래프가 말해주듯이 사용시간에 비례해서 오존은 계속 누적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미터(100센티) 떨어진 곳에서 8시간 켜놓고 있으면 오존 중대경보 수치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오존 중대경보는 사실상 외출금지의 수준입니다.

(여름철 오존경보 때. 최고 경보 수치) 즉, 실내에서 공청정기 틀고 오히려 오존 중대경보 이상의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국가 예산을 들여 측정한 피해정도를 조사 후에 발표를 못한 것이고 저는 20년을 넘게 감시와 미행, 업무방해 해킹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대문 구청 교통과를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업무방해와 스토킹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밤에도(2023.10.18. pm 10) 스토킹 피해를 받았는데. 저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조금만 규정을 위반해도 딱지를 끊는 것입니다. 2023.10.18. 오후 10시 경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자전거 도로 끝에 차를 세워 놓았다고 딱지를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 있다가 항의를 하며 이름을 댈 것을 요구하자 장난하지 말라며 딱지를 끊은 단속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장난한다고 하기에 112를 불렀습니다. 그 장소는 앞쪽으로는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고, 뒤쪽으로는 자전거 도로의 끝 부분입니다. 즉,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적한 장소에 누군가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계속 쫓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이동사무실)에서 잠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증거 목록 1 사진과 설명] - 스토킹 단속 현장

이 서대문 구청 교통과에서는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저의 홍삼찬가 매장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작년에 갑자기 노란점선을 긋고는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막대한 골목의 매장 옆 공간을 주차장처럼 잘 사용해 왔고 구청과는 단 한 번도 그 이전에는 불미스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노란 점선을 긋고, 벌금을 물리며 자신들은 법대로 한다며 법으로 따지라고 합니다. 법도 상식과 관례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악의를 가지고 그냥 규정을 만들어 줄긋고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법언에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라는 표현과 같이 저의 행동을 자로 재면서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목록 2- 일반인 퇴근하는 저녁 7시30분 차빠라는 구청 교통과]

이들의 괴롭힘, 스토킹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 빌라에도 아주 비슷한 짓을 뒤이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는 입구 골목이 널찍하여 일반 차량들이 도로 좌우측에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홍삼찬가 매장에 노란 선 긋고 벌금부과 한 이후부터는
이 빌라에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 소화전 설치구역 >이라는 팻말을
담 벽에 붙여 놓고 빌라 거주자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거목록 3 - 사진 및 설명]- 거주자 우선주차 못하게 규정 남용

보통 골목은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관례에 따라 가까운 집에 사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차관례인데, 여기를 팻말을 붙여 놓고
바로 그 빌라에 사는 주민의 차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장, 집, 또 차량(이동사무실)을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며 과잉
단속으로 삶을 괴롭히고 업무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주(2023.10.9. pm10:40)에는 여의도에서 <차량 이동사무
실>로 업무 중 몇 년 동안 해킹하는 범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다가
택시와 충돌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해킹 범을 수사하기는커녕, 그냥 돌
려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출동한 112 경관이 말입니다.

교통사고는 사고니까 조사해야하고, 해킹은 물적, 육체적 피해가 없으니
다음날,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
하는 저의 요청을 묵살하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킹범을 정식 고소했지만, 이틀이나 지나서 사이버수사
관이 전화를 했고, 자초지종을 말하려니 저보고,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 불분명하다” 고 하여, 저도 상소리가 나갔고 수
사관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행히 청문감사실에서 수궁하여
사이버팀장이 직접 고소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계속된
해킹범 사건은 바로 위의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란 배경사건이 있기에

이를 숨기고 은폐하려는 집단조직 범죄이니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서대문 경찰서의 저에 대한 특별관리 집중 매뉴얼>

사는 지역 관할인 서대문 경찰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저의 사건을 담당하는 정해진 매뉴얼이 있고, 수사 지휘(?)자가 있어서 20여년 법조 사조직의 공격과 범죄에 대하여 피해를 고소를 하면 단 한건도 기소해주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단 한건 있었는데.

검수완박이 한창 온 나라를 흔들 때였습니다. 그런 민감한 때였는데도 저의 각목폭행 사건은 단순폭행으로 수사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각목폭행범의 배후 즉, 사주한 자가 분명히 있으며 이 사주한 범인을 잡아달라는 것이 저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사건화 되었고, 20년 동안 수많은 사건으로 고소와 진정을 하였지만, 기소가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바로 이번 경찰관의 직무유기 사건을 중앙지검 여검사는 4명 (수사경관, 수사팀장, 청문관, 경찰서장) 모두를 기소하여 서초서로 재수사를 넘겼습니다.

[증거목록 4 - 중앙지검 기소결정문과 고소장]

이런 경우는 없었기에 저도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렇게 기소한 검사도 (누구나 단번에 직무유기란 사실을 알 수 있음) 5개월이 지나자 각하로 재결정해버립니다. 그것이 저를 공격하는 법조사조직 범인들의 힘인 것이지요. 경찰을 떡주무르듯이 하고 검사조차도 3개월이면 번복을 하게 할 수 있는 법조사조직의 범죄기록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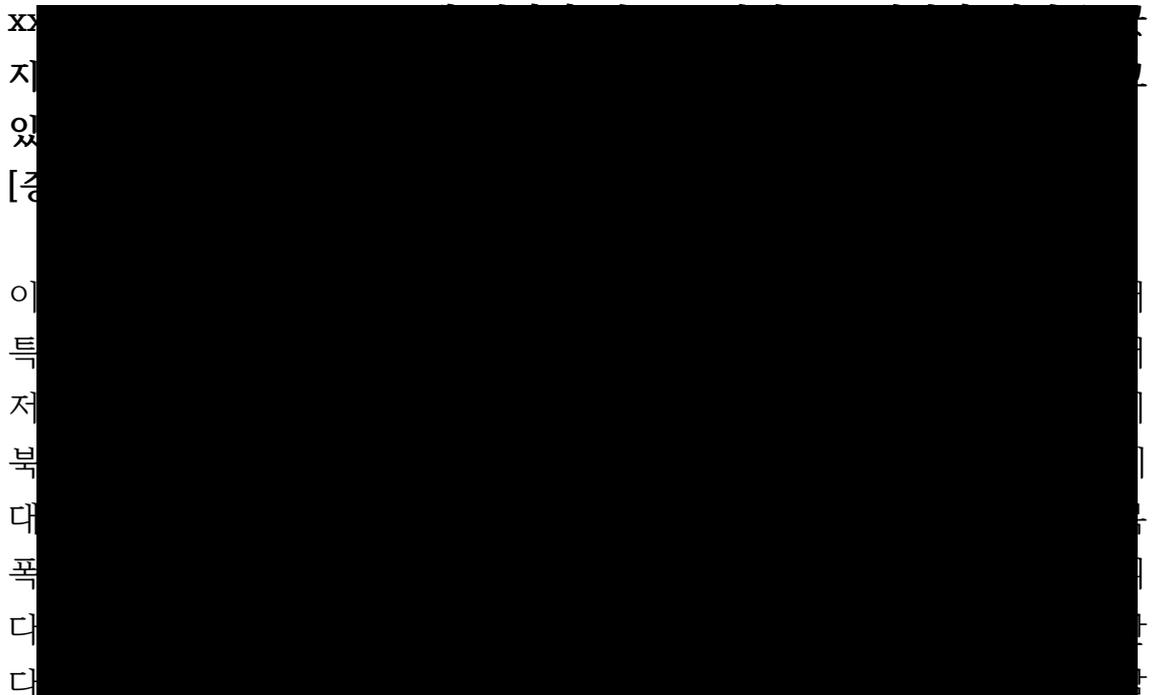
[증거목록 5- 중앙지검 검사의 각하에 대한 추가 이유서]

이렇게 서대문 경찰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의 사건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 경찰서입니다. 공기청정기 사건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 경찰서에서 19년 동안 아무문제 없이 잘

사용해온 매장 옆 막다른 골목의 작은 공간에 노란 점선을 굵게 허락해 주고 구청에서는 직접 와서 선을 긋고 벌금을 부과하여 변호판을 영치시킬수 있는 금액 이상을 만들어서 변호판 떴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30만원 이상 체납시 변호판 영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의를 신청하자, 구청에서 나와서 노란선 한 칸을 지워주고, 제가 19년 동안 사용해온 부분은 사유지가 아니라며 측정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것을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여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차가 2대나 출동하여 다툼을 정리하고 난 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즉, 서대문 구청 교통과가 시비를 걸었고, xx xx은 늘 그러듯이 쌍욕과 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xx과 구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특혜관계에 있는 사이이기에 이번에도 즉각, 담당 수사관에게 배후를 ,즉 시킨 사람을 잡아달라고 했던 것이고, 수사관은 조사도 없이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검찰에 단순 폭행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야 구구절절 이런 사실들을 밝히는 것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뉘우치거나 그만 둘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피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 [redacted] 가 있는
것으 [redacted] 철제대
문은 [redacted]

[증거목록 7- 사진 및 설명]- 국유지를 특정인에게 특혜비리

이와 같이 바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숨기려는 좌파법조와 관련된 관계기관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적인 은폐와 저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님께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사건과 사륜오토바이 사건을 탄원, 신고하였지만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저의 이 억울한 사건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소비자보호원,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개입하였던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추적60분을 통하여 두 번이나 방영되고,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런 사실조차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인가 KBS 추적60분은 아예 종영을 고하고 아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홈페이지 www.air365.net 에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의 은폐와 법조사조직의 범죄에 대하여 다시 밝혀 놓자

종영했던, 추적60분이 재개 한다고 다시 등장하였고,

이들이 재등장한 것은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이 완전 은폐된 줄 알고 아예 방송을 폐지하고 사라진 것인데, 제가 이렇게 변함없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밝혀내자 다시 재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방송을 두 번이나 한 추적 60분에 대하여 뭐하고 하는지 들어볼 만 할 것입니다.

이 방송에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보호원에서 삭제한 [REDACTED]는지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REDACTED]는 것으로 동의 [REDACTED]를 것 입니다. [REDACTED]가 신 고했고 그 글이 정말 있느냐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청:

1. 서대문 경찰서와 서대문 구청 교통과를 통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일단의 공무원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구청과 매장 xx과의 특혜관계가 수사되길 요망합니다. (구청교통과 과장의 일부 직원과 주차단속반원들)
2. 해킹과 업무방해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의 수사역량 개선과 법조사조직의 모형인 경찰 내부의 사조직 해체를 당부 드립니다.
3.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로 인한 치명적 피해를 입고도 참여정부의 4개 기관, 특히 소비자보호원과 환경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은폐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나 후에 생긴 가슴기 피해자들은 문정부를 지나면서 환경부에서 무작위로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1조원 가까운 돈을 예산과 기업에 요구하고 이미 3000억 가량을 수령했습니다. (현재 9240억원 요구 중)

맺으며,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적60분이 방영된 것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어렵사리 방송된 것입니다

다. 방송 후 7년이나 지났는데도 정부기관들은 계속 은폐를 감행하였고 재판부는 손바닥 같은 사실들을 묵살하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결국 2년여의 반전의 기회를 더 보다가

피해자분들께 대법원 판결문의 부당성과 불법을 소명하여 발송하였는데,

추적60분 방송의 피치 못할 사정(?)도 증거7번으로 등록하여 2012년 12월 30일 발송하였습니다. 방송 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최소한 당사자들은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몇 개월 지나자 그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에서

오존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도 인체에 별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오존 피해에 대하여 왜곡 방송을 합니다.

- 또 그즈음에 가슴기 피해 사건이 새로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증거목록8- sbs 세상에 이런일이 - 생고무장갑이 하루밤 너덜너덜]

과연, 사람의 폐가 생고무 장갑보다 더 튼튼하고 질길까요?

핵심 내용은 식당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고무장갑을 넣어놓고 다음날 오면 고무장갑이 너덜너덜 걸래가 되어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상해서 조사를 위해서 밤새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백배속 재생을 해보니 바로 그 주범은 오존이었다는 밝혀냅니다.

귀신이 그런다고 믿어서 부적까지 붙여 놓았다는데, 하룻밤 사이에 공기정화를 위해서 틀어놓은 오존 정화기가 주범이었던 것이지요.

진단한 환경공학과 교수는 밤에 환기만 시켜주면 문제없다고 결론을 짓고 마치며, 생고무 장갑이 하룻밤 사이에 너덜너덜 걸레가 되어도 사람의 폐세포는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과연 인간의 폐가 생고무 보다 질길까요.

특히,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는 외부 공기 들어올까봐 주로 문을 꼭꼭 닫고 사용하는데,

생고무보다 더 탄탄한 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피해자의 피해를 은폐하기 위해서 저와 매장 , 또 사는 집을 20년 동안 끊임없이 감시하고 괴롭히며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해 해 왔습니다.

이들이 그냥 몰래 숨어서, 매장 컴퓨터나 해킹하고 , 누구를 만나는지 따라다니며 미행 감시하고 쳐다보고만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업과 업무도 직접적으로 해킹, 업무방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홍삼찬가 매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구청이나 정보원들을 통하여 괴롭히며 매장을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홍삼매장 좌우 200미터 안은 가히 영화촬영 세트장과 같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보원들과 각종 기관 프락치, 또는 원주민들까지도 반프락치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부디 저의 20년에 걸친 두 사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과 <사륜 오토바이 사건>을 통하여

1 + 1 = 100 인 나라를 1 + 1= 2 라는 지극히 당연한 국가로 새롭게
변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라며

뜻하신 국정 목표를 이루셔서 소원의 항구에 안착하시길 저도 늘 기도
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소서!!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2023년 10월 19일

불효자 곽춘규 올림

[증거목록 1- 사진과 설명] - 스토킹 단속 현장

[증거목록 2- 일반인이 퇴근하는 저녁 7시30분에 차 빼라는 구청교통과]

[증거목록 3- 사진 및 설명]- 거주자 우선주차 못하게 규정 남용

[증거목록 4- 중앙지검 기소결정문과 고소장]

[증거목록 5- 중앙지검 검사의 각하에 대한 추가 이유서]

[증거목록 6- 사진 및 설명]- 불공정 단속뿐 아니라 특혜비리

[증거목록 7- 사진 및 설명]- 국유지를 특정인에게 특혜비리

[증거목록 8- sbs 세상에 이런일이 - 사고무장갑이 하루밤 너덜너덜]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탄원서

2023. 10.19

법치를 소망하는 시민 곽춘규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증거목록 1- 사진과 설명] - 스토킹 단속 현장



홍제천 옆의 도로. 자전거 길이 끝나는 지점, 앞쪽으로는 주차구역임
이런 곳에 밤 10시 넘어서 잠시 차안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 주차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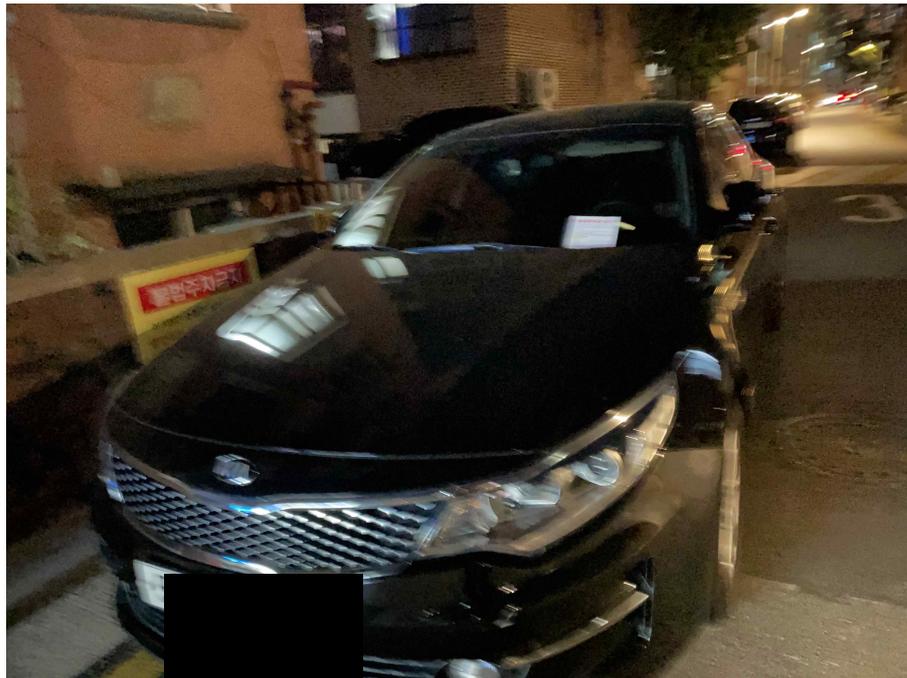


이 주차 단속원은 이름을 밝히려는 요구에 장난하지 말라고 하여 112경찰을
요청하나, 출동 경관은 구청에 이의신청하라며 이름을 밝혀주지 않음.

[증거목록 3- 사진 및 설명]- 거주자 우선주차 못하게 규정 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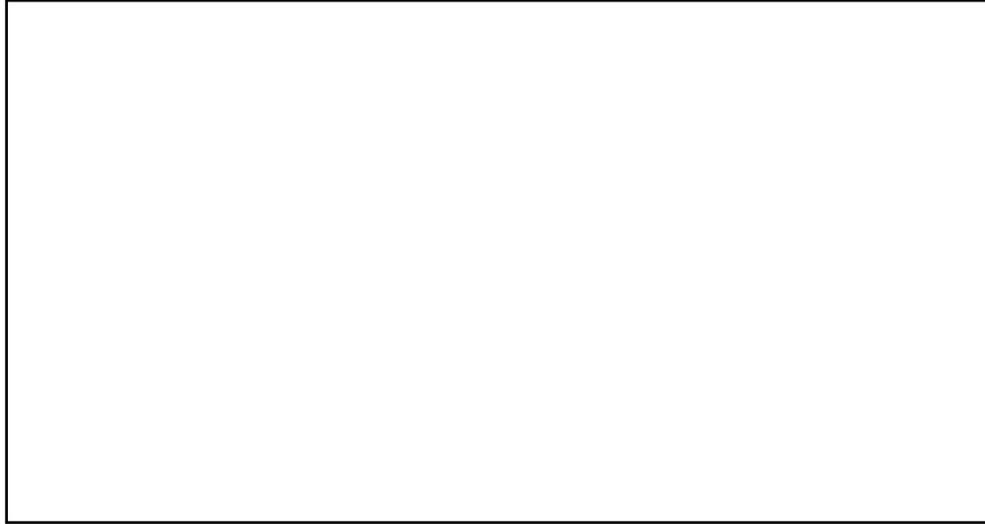


이곳은 널찍한 골목사거리로 홍삼매장에 노란 점선 긋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곳임



이렇게 빌라 바로 옆 골목인데 과태로 부과- 홍삼매장 주차장에 노란 점선 긋고 과태로 부과 하기 전에는 이런 일 없었음

[증거목록 6- 사진 및 설명]- 불공정 단속뿐 아니라 특혜비리



빨간 선쪽을 보면 노란점선을 아예 긋지 않는다. 반면 반대쪽의
홍삼매장은 출입문 입구에도 선을 긋고 단속합니다.



뒷집과 차별하여 출입구 앞까지 노란점선을 긋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19년 동안 이 매장을 운영했지만, 이런 경우나, 구청과 한번도
다툼일이 없었음.